

[15차시] 띄어쓰기



1. ‘뿐’의 띄어쓰기

※(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싫다 좋다 말이 없다.

모두들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다 뿐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때도 의존명사로 띄어 씁니다.

이름이 나지 않았단 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시간만 보냈단 뿐이지 한 일은 없다.

※(명사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보조사로 붙여 씁니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만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썽꾸러기였다.

그는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했다.

2. ‘만’의 띄어쓰기

※(주로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시간, ‘~동안’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씁니다.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

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15차시] 띄어쓰기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일 때도 의존명사로 띄어 씁니다.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
듣고 보니 좋아할 만은 한 이야기다.
그가 그러는 것도 이해할 만은 하다.

※한정을 나타내거나 강조하는 뜻일 때는 보조사로 붙여 씁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머리가 멍했다.
그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돼도 바랄 것이 없다.

3. ‘간(間)’의 띄어쓰기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씁니다.

고속철을 타면 서울과 부산 간에 2시간40분이 걸린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일 때도 의존명사로 띄어 씁니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나타낼 때는 접미사로 붙여 씁니다.

이틀간, 한 달간, 30일간, 2년간

[15차시] 띄어쓰기



4. ‘망정’의 띄어쓰기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씁니다.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아기가 크게 다칠 뻔했다.

※(주로 ‘ㄴ’ 받침인 용언의 어간에 붙어)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는 연결어미로 붙여 씁니다.

시골에서 살망정 세상 물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우리 학교는 규모가 작을망정 역사는 오래됐다.

시험에 떨어질망정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겠다.

5. ‘만큼’의 띄어쓰기

※앞의 내용에 상응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씁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마련이다.

사용한 만큼 돈을 내면 된다.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일 때도 의존명사로 띄어 씁니다.

어른이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었다.

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5차시] 띄어쓰기



※(주로 명사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낼 때는 보조사로 붙여 씁니다.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공부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주고 싶었는데!

6. ‘안’의 띄어쓰기

‘안’은 ‘안 간다’ ‘안 먹는다’ ‘안 된다’처럼 띄어 쓰지만, 일·현상이 좋게 이뤄지지 않거나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함을 뜻하는 ‘안되다’(‘잘되다’의 반대 개념)는 한 단어로 붙여 씁니다.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된다.(일반적인 경우)

장사가 너무 안된다.(‘잘되다’의 반대)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잘되다’의 반대)

※ 심화학습

‘못’의 띄어쓰기

※‘못’은 ‘못 간다’ ‘못 말린다’ 등과 같이 띄어 쓰지만, ‘못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씁니다.

담배는 피우지만 술은 못한다.

노래를 못한다. / 공부를 못한다.

말을 잊지 못했다.

[15차시] 띄어쓰기



※'못'이 '되다'와 결합하는 경우 성질·품행이 좋지 않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나타낼 때는 '못되다'가 한 단어입니다.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1km도 채 못 된다. (일반적인 경우)

못된 심보다. 못된 짓만 골라 한다. (성질·품행)

못된 게 남의 탓이냐?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